

양촌 권근 3대 묘소 일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도 (왼쪽) 조감도(안) (오른쪽)

충청북도 음성군은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3대 묘소(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가 위치한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산 7번지 일원에 대해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3대 묘소는 양촌 권근과 아들 문경공(文景公) 권재(權躒, 1387~1445)를 비롯해 손자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攀, 1416~1465)의 묘소를 일컫는다. 묘역 주변에

는 3대 묘소 이외에도 양촌 권근의 넷째 아들 안숙공(安肅公) 권준(權遵, 1405~1459)의 묘소와 안숙공의 둘째 아들 마전공(麻田公) 권념(權念) 등의 묘소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양촌기념관과 양촌 3대 신도비각, 안양공(安襄公) 권반(權攀)의 부조묘(不祧廟), 천상열차분야지도석 등도 위치한다.

충청북도는 조선 초 조선왕조를 안정화

시키는데 수성(守成)의 철학을 제공한 사상가이자 조선 최고 경제문장가인 양촌 권근을 중심으로 음성군의 유교문화를 이끈 역사적 인물들을 관광자원으로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음성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은 42,706㎡ 이고, 사업규모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0%와 도비 10%, 군비 4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39.1억원의 방대한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교영상문화체험장(6,132㎡), (가칭)전통정원(10,861㎡), (가칭)양촌정(5,050㎡) 등이다. 유교영상문화체험장은 생활관, 화장실, 다목적체험관 및 식당, 상설전시관, 세미나실, 교육관, 다실영상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 (가칭)전통정원은 유교의 대표적인 화목인 사군자와 전통수종을 도입하여 정원탐방과 함께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가칭)양촌정은 전통정자 및 원터로 휴식 및 경관을 조망하는 정자로 조성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2016년 6월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선정된 이후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21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양촌 권근 3대 묘소 일원의 현재의 모습(현황도)과 사업 추진 후 설계도대로 완성되었을 경우 조감도(안)는 그림과 같다.

권행만 편집국장

새롭게 뜬 '음성양촌유교문화마을'

권영정 충청역세권개발추진위원장



음성군이 생극면 방축리 산7번지 일원 4만2706㎡에 '양촌유교문화마을'을 조성한다. KTX 감곡역 기점 9.5km 지점이다. 투자비 139억1000만원으로 내년 2월 건축설계에 들어가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여기를 임마누엘 페스트라니가 교수가 말한대로 신유교문화의 메카로 만들 수 있다.

필자가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관과 협의했을 때다.

"음성에서 신유교문화가 이목을 끌고 빛날 수 있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인데 '여하히 하나에 달렸습니다. 신사고를 가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도 필요합니다'라고.

운영철학과 목표, 핵심가치와 비전,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과제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다.

비전으로 유교 문화의 재구성, 유교 교육의 질적 관리, 유교의 대중화다. 소년 대상의 'K-양촌학당' 설립은 유교 사상을 달성하는 핵심 요체다. 목표 달성의 수단은 교본을 통한 수업이다. 주입식을 배제하고 스스로 과제 해결 방법을 구안해 수행한 후 피드백시키는 열린수업이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회도 마련한다. 소학(小學)은 필수과정이다. 선택적 활동 주제로 행동예절, 음식상, 제례, 자연과학, 글짓기, 국제 청소년 이음, 전통놀이, 다도, 음악, 미술, 체육 등을 선정한다.

하드웨어 쪽이다. 건축은 명륜당, 청와대, 도산서원의 강점을 절충해 인류문화 유산의 가치를 지니게 짓는다. 첫눈에 '와! 대단하다! Very fine!(정말 멋지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신경 쓴다. 현판은 대통령 휘호로 새긴다. AI형 ICT 첨단설비에 공해가 없는 자연 친화적 청정 지대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 화재 예방과 방재·보안 시설에 완벽함을 도모한다. 유물관에는 양촌 사료와 기증받은 유교 관련 자료도 전시해 둔다. 식객에게 유교 식단과 한식

을 제공하되 식자재는 접지의 AI 스타트업 유기농으로 공급한다. 종중 산에 자라는 100여년 된 노송과 잣나무를 경내에 다량 이식해 한국 전통의 운치를 돋우고 사철 꽃향기 가득한 정원도 꾸민다. "와서 보길 잘했다! 내 아이 'K-양촌학당'에 입학시켜겠다!"가 입소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권근 3대 묘소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으로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다. 권근(權近)이 간행한 성리학 입문서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것도 서두른다. 권근의 발문과 우주문이 기록돼 있는 권근 사당 앞의 천문도(天文圖; 국보 228호)는 자연과학 이치를 일깨워준 위대한 유산이다. 이 보물 탁본에 '음성양촌유교문화마을' 문자가 새겨진 동판(銅)을 제작해 1억명을 목표로 지구촌 동네마다 집마다 매달게 해 전파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신비나 남자들이 아기를 업거나 장을 봤다. 연 알 박지원은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격몽요결에 차례상을 계절 음식 및 가치를 형편껏 올리라고 권하는 정도지, 차례상 차림을 규정한 것은 없다며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이는 유교 문화가 고리타분하고 허례허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단면으로 오해를 풀만 하다. 물질만능주의와 갈등이 사회 전반에 커지고 있는 지금 '행복한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답은 유교 윤리의 핵심인 '예(禮)'로 바짝 다가서는 지혜다. 새 출발점, '음성양촌유교문화마을'에 거는 기대가 이것 때문이다.

제천 권동환(건중) 부회장의 부인, 1등상 금상 수상

권문의 머느리 채희숙 전 제천권문의 머느리회장

제천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개최한 '식도락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한 제천의 숨은 요리고수 15팀이 지난 26일 내토시장 일원에서 '식도락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중회 제천 권동환(건중, 시중공파 38世) 부회장 부인 권문의 머느리 채희숙 전 제천권문의 머느리회장이 1등 금

상을 차지하였다. 제천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원도심 상권 내 업소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간편식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음식을 활용한 관광 기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경연에서는 한식대접4의 우승팀인 경북팀의 최정민 셰프 등 3명의 전문 심사

위원들이 대중성, 독창성, 맛 등 6개 항목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팀들을 선정했다.

경연 결과로 △금상 채희숙 '연꽃밥상' △은상 노미선 '당귀 품은 고기밥상' △동상 강현주 '제천 한방 3코스 요리' △장려상 김가영·황은영 '황기소고기 쌀국수, 짜조, 반미샌드위치', 엄현정 '몽소스 당귀 부

각, 알알이 당귀 안심 탕수육'이 각각 선정돼 금상 200만 원, 은상 15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출품작은 향후 레시피북으로 제작돼 원도심 상권 등 먹거리 관광 활성화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글 권오철 기자



부호장공파 운영위원 회의 개최



부호장공파총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주연(은) 1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 여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장 등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

해 지난 3년 동안 정기총회 다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의 가졌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중친회에서 우리 족친들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다소 아쉽지만 앞으로 참석을 많이 하자"고 당부했다. 또 시내 옥동으로 정자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견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자 운영위원들은 시내 옥동과 송현동에 있는 전담을 매각하기 위해 이 안건을 총회 때 상정하고 족친들에게 배부할 서류에 회칙을 첨부하도록 했다.

제106회 정기총회는 오는 1월 11일 오전 11시 안동중친회관 2층에서 개최하며 기념품은 태월이 아닌 양말을 선물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시내 서동문로(태화동)에 있는 '농민후계자식당'으로 이동,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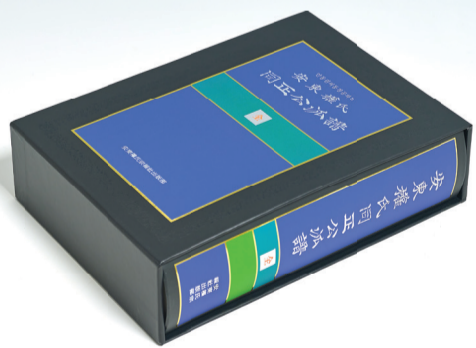
권영건 보도부장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한글과 인터넷판을 겸한

안동권씨 동정공파보가 나왔습니다

동정공파는 안동권씨 10세 15대파 중 제5파 휘 체달을 파조로 전국과 해외에 산거하는 2만8천여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동권씨동정공파보는 역대로

세칭 동파와 서파로 양자가 갈라져 발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양자가 단일화로 통합되어, 각기 여러 권으로 나오던 것이 거편의 초호화판 단일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최첨단출판인쇄제책기술 4x6배판 최고급용지자재 사용

부록합책 1,626면 값 150,000원

동정공파보구입신청

<36709> 경북 안동시 육사로 333 펠리시아 101동 303호 권영화 010-7288-2510

e-mail 개미골 kwongemigol@hanmail.net

동정공파카페 https://cafe.daum.net/andongkwondj

서울구입처 안동권씨종보사 02) 723-4480, 010-6491-3329

안동권씨동정공파보편찬위원장 총회장 권오수

癸卯新年有感 계묘신년유감

東湖 동호 권상목

迎新瑞氣會吾東 영신서기회오동

새해를 맞이하니 서기가 우리나라에 모여들어

自釋難題慶賞隆 자석난제경상릉

어려운 과제가 스스로 풀려 아름다운 경사 융성하네

石壁樓明承麗日 석벽루명승러일 석벽에 누각이 밝으니 고운 햇살 이어지고

獄窓簾動微風 옥창림녕동미풍 옥창에 주름이 차가우니 실바람이 불어오네

初年忍苦無雙寶 초년인고무쌍보 초년 고생을 참는 것은 둘도 없는 보배요

赤手成家竟不窮 적수성가경불궁 맨손으로 성가함은 끝내 궁박하지 않네

統一大韓期必遂 통일대한기필수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필코 완수하니

子孫萬代永亨通 자손만대에영통 자손만대에 길이 흥통하리

